

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정부의 인식조차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일 건교부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월·정선·태백 주민들의 쫓겨온 동강에 댐을 건설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환경부는 당진에 불과 4km를 거리에 두고 생태공원과 유독 산업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을 인가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번만 아니다.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농약 사용량이 뉴질랜드보다 무려 48배나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

환경문제는 더이상 방치하거나 느긋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경전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불교사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이렇게 들었다

#### 환경

## “깨끗한 불국토 깨끗한 마음에서”

■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는 것이다. <유미경>

■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나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면 마땅히 방편을 구하여 그 고난을 풀어주며,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감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범망경>

■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켜가는 행위라 부른다. 그러므로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는 왕이라면, 성음·부락·산림·천택(川澤)·

원관(園觀)·궁전과, 잘 꾸며진 누각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골과, 모든 곡식·콩·상·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태우지 말며, 응당 파괴지 말며, 응당 그것에 물을 대지 말며, 응당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여러가지 물건들은 어느 하나도 사람이나 축생에게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중생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바에는, 그 사용할 물건들을 태워 고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니간지경>

■ 자연의 바람이 있어 문을 열어 스스로 열고 자연의 바람이 있어 땅을 불어 깨끗하게 하며 자연의 바람이 있어 꽃을 불어 땅에 흩으니 꽃은 무릇에까지 이른다. <세기경>

■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화랑품>

■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배·상아·뽕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본품>

■ 수행자들이여, 수행자로서 배우는 자이며 아직 마음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최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으로 여기고 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

것에서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울바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즉자적 대자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중이화경 근본법문경>

■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저도 없게 하라. 또 모든 것은 부처님과 불자들이 가득하여 법음이 언제나 즐겁게 울리게 하라. 모든 생류들에게 새 나무 광선 허공으로부터 법음의 울림이 울사이 없이 들리게 하라. <보리행경>

■ 일체의 국토가 하나의 국토에 들어가고 하나의 국토가 일체의 국토에 들어간다. 일체의 세계가 한 터럭(一毛)속에 들어가고 한 터럭이 일체의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몸이 한 몸에 들어가고 한 몸이 일체 중생의 몸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겁(劫)이 일년에 들어가고 일년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간다. <회음경>

### 목탁소리

김주일 <취재2부 기자>

불교TV가 침몰의 늪을 벗어날 길은 없는가?

노사가 화합해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발단은 한국불교살업인회 이회식 회장이 5일 부터 불교TV 대표이사 신하스님의 허락하에 'bm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불교TV 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은 조직 구조에 관한 사유상 존중 근거가 없고 이사회에 정혀 보고도 되지 않은 불법 조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상 가상으로 대표이사 신하스님은 '운영위원회'와 약속한 일이라며 5일 열렸던 '불교TV 제1차 단체 교섭'에서 노조의 해체를 명령했다. 회의를 끝난 뒤 노조는 사장님이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과 노조 해체를 강요한 것 등을 부당노동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불교TV 어찌되나

이번 갈등의 요인은 우선 'bm 운영위원회'가 불교TV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경영진의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회장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현재 자금 능력이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운영위원회'는 지금부터 불교TV를 살리려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교TV를 살리려는 경영진의 태도 역시 갈등으로 치닫케 한 또 하나의 이유다.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방송중단 사태를 맞은 직원들은 2월23일 팀장회의를 통해 7명의 기획팀을 만들어 방송재개안 등을 포함한 경영안 해소 방안을 마련, 사장 스님에게 보고했으나 아직까지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장 스님의 얼굴은 1주일에 한번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직원들은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책상위에는 결재판만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다.

9일로 참사 4주년을 맞이한 불교TV. 영상 포교의 선두 주자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반성과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온 식구가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한 예는 얼마든지 많다. 각자의 명분과 논리로 맞서기 보다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화합된 분위기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jikim@buddhopia.com)

# 열린마당

## '미륵사지 서탑 해체복원'

미륵사지 서탑(국보 제11호)을 해체복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수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도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의뢰해 지난 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탑신의 석재 2백49개 중 1백28개와 기단부 기둥이 균열된 것으로 나타나 해체복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증과 완벽한 복원 기술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환경정비등 보존책 찾아야”

김정기 <문화재위원>

탑의 안전진단 결과, 해체해서 복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무리인 듯하다. 최소한의 손질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탑의 안전도는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야외에서 이미 천년이 넘게 견뎌온 탑의 석재는 물론 많이 풍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체한다면 풍화된 석재를 다시 써서 탑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위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모습에서 가능하면 흉하지 않게 보이도록 탑 뒤쪽 측에도 가지런히 정돈해야 한다.



### “붕괴위험...해체복원 급하다”

김삼룡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미륵사지 서탑은 해체복원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너무 낡아 비가 새기 때문에 탑 부재들이 많이 산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일 4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보수를 해도 현 상태로는 지진에 대한 방비책이 있을 수 없다. 빨리 해체해서 복원해야 한다. 6층 일부 남아있는 돌은 풍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화학처리한 옛 부재와 탑 주변을 조사 발굴하면서 모아놓은 옥개석 등 부재, 탑 속에 있는 석재 등을 모두 모으면 9층까지 복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60% 정도만 옛 석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복원은 문제없다. 하루속히 해체복원해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서탑이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균열속도등 안전진단 철저”

장경호 <경기도박물관장>

석재의 균열은 석탑 보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륵사지 서탑을 그냥 두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해체복원을 하느냐 보수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철저한 조사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탑의 균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현재 탑에 균열이 많이 가있지만 그 균열의 진행속도를 잘 조사해 균열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 해체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돌의 부식도 역시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탑을 이루는 석재 하나 하나의 부식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부식이 진행되는지 밝혀야 한다. 부식 속도가 빠르다면 무너지기 전에 해체 복원을 해야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부터 해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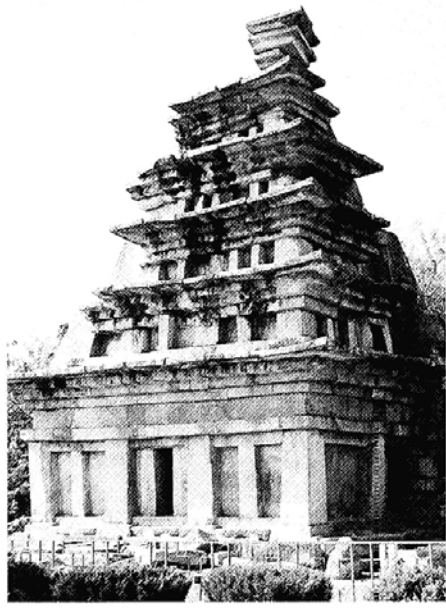


### “해체는 최후선택...신중하게”

이강근 <경주대 교수>

미륵사지 서탑은 1천년이 넘는 세월을 온갖 풍파에도 살아 남았기에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탑을 해체 복원할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시멘트와 석재가 섞여있고 탑의 내부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해체는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잘 해체한다 하더라도 있는 돌만으로 다시 복원할 수 없다. 새 석재와 옛 석재를 같이 배열할 경우 돌이 버릴지도 모른다.

해체 복원은 보존 방안이 아니다. 보수할 수 없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마지막 방안일 뿐이다. 새로 해체복원해 새 석재를 들여 깨끗하게 탑을 복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미륵사지 탑이 아닌 새로운 탑일 뿐이다.



◇해체복원-보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보 11호 미륵사지 서탑.

## 서북 토종 오가피 농장 (인중 오가피 작목반)

밭의 흙에는 수억마리의 미생물·곰팡이·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흙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북 토종 오가피 농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토종 유기농법에 의지하여 농사짓고 있습니다.

12년생의 오가피 나무 4500주가 자라고 있는 농장밭을 조금만 파보면 어른 손가락 굵기만한 지렁이가 꿈틀꿈틀 기어나와 사람을 놀래키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공생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농장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주시시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오가피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대표: 백운찬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557-4  
오가피엑기스, 오가피와인, 모듬분양, 어성초(분말)  
연락처: 0333-682-5034, 5033  
인터넷홈페이지: http://myhome.netgo.com/baegh/

## 지장 만일기도. 6만지장보살님 조성불사안내

서울 불광동에서 30분거리, 아름다운 호수가 2개 있는 산자수려한 양주 백석도리산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님 성상을 모시는 조성불사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철야기도 정진 및 오는 10월 만일기도(30년) 입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필히 동참 바랍니다.

- 만일기도입제일: 1999년 10월 17일(음9월 9일) 오전 10시
- 만일기도 1년 동참비: 1만원(30년 30만원)
- 지장보살님 한분 모시는 동참금: 10만원(1차 5차)
- ▶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삼보사 ☎ 352-6406
- ▶ 기도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128-1 도리산 육지장사 ☎ (0531)871-0101
-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33-01-0097-579, 농협 045-01-202971, 우체국 012468-0136873-11, 하나은행 110-082213-00104, 주택은행 415637-01-002302
- ▶ 예금주: 지장기도만일회

삼보사 육지장사 주지 지원 합장

## 주말 참선방 안내

불자가 단기출가하여 대운스님과 함께 참선수행을 하며 입방중 승가 전통인 두끼의 발우 공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간원합니다.

### 아래

- 일 시: 매주토요일 오후7시입방 일요일 오전9시 방선(의양)
- ※ 단기출가수행이므로 사찰기본의식(예불 공양 율령등)은 동참하여야 합니다.
- 입방비: 무료
- 교통: 의정부시 북부역 토요일 오후5시 지장사 차량대기 출발
-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중간 덕계리 저수지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 사경법회 안내

- 삼세제불의 정체이며 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경전을 우리 손으로 사경함으로써 마음이 일심으로 모아지고 수행력과 공덕을 날로 증장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의정부시 북부역 오전 11시 차량대기)
- 회 비: 무료임

전화: 0351)863-1888  
경기도 양주군 회천을 덕계리 산 71  
지장사 대운 합장

## 생활역학 및 사주 명리학 강좌

# 수강생 모집

● 교재 - 사주정해 1권·2권 저자 최학림

본 보현정사에서 드디어 저자 최학림 스님께서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 직접 책임지도함. 시간과 좌석 관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 ※ 본교재 사주정해 1권·2권은 원광대학교 역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 ※ 스님들은 특별지도합니다.

◆ 개강일시 ◆  
1999년 3월 30일 오전 10시  
◆ 기 간 ◆  
주2회 매주 화, 목 오전 10시(3개월 과정)  
◆ 장 소 ◆  
보현정사

## 보현정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61번지 24/3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200m거리)

문의전화 (02)952-7229